

# 농촌부엌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I)

-부엌의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Improvement and Standardization of Rural Korean Kitchen Space :

Field Survey on Architectural Elements and Facilities(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교 수 지 순

교 수 윤 복 자

부 교 수 윤 정 숙

박사과정 유 영 희

박사과정 최 병 숙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Soon Chi*

*Professor : Bocha Yoon*

*Associated Professor : Chungsook Yoon*

*Doctoral student : Younghee Yoo*

*Doctoral student : Byoungsook Choi*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개요

IV. 부엌의 물리적 측면

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itchen space needs in regard to the architectural elements and facilities of rural houses. Three rural villages, Kum-Sung Ri, Young-San 1 Ri, and Yu-Bang 2,5 Ri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present and past condition of the kitchen space was investigated by the field survey method.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1) The interior floor materials of the kitchen had been

\*본 연구는 주식회사 한샘의 연구비 수혜에 의해 수행된 것임

changed from mostly mudplastered floor to linoleum, and the former low level of the kitchen floor had been lifted to the same level of the house plane. This change was made possible by the separation of the cooking from the heating system. 2) Western style kitchen, work centers and kitchen cabinets had been installed in the most of the rural houses. 3)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e rural Korean kitchen space was classified into six types.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농촌은 1960년대의 공업화 정책과 19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직업의 전환, 인구의 감소,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등을 보여왔다. 더욱이 1970년대에는 농촌지역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72년부터 시행된 새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의 지붕개량을 시작으로 부엌, 변소, 퇴비장, 담장 등의 개량과 도로확장 등 파시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이루었다. 이는 농촌의 지역사회 개발에 주력한 것이었으며, 주택측면에서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개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8년에는 지붕개량 사업을 완결한 이후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농촌 주거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택개량은 내무부및 지방행정 부서별 표준형 농촌주택 설계도를 보급하여 이루어졌고(박연훈, 1987), 취락구조 개선으로는 상·하수도나 공동우물 설치, 공동세탁장과 공동취사장 등의 설치, 그리고 메탄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졌다(이 원, 1987).

이와 같은 농촌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초를 기점으로 농촌주택의 개량을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개량의 주된 부분이 부엌에 대한 개선이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이은경 1990, 유옥순 1989, 최병숙 1988)에 의하면 농촌부엌은 부엌내의 시설 및 설비, 부엌의 마감재료와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부엌내의 시설·설비의 변화로는 재래식의 흙이나 시멘트몰탈의 부뚜막을 스테인레스 스틸과 나무로된 기성제품의 입식작업대로 교체하는 경향이있다. 그리고 부엌내에 상·하수도를 설비하는 것과 난

방과 취사설비를 분리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설·설비의 변경은 부엌의 구조 및 마감재료의 개조를 수반하게 되어 바닥의 고저차를 없애거나, 부엌 마감재료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바닥을 비닐류, 타일류로 마감하고 벽과 천정을 합판류로 마감하여 점차 도시형 부엌인 「DK」형으로 개조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오늘날 농촌지역의 주택에는 여러 형태의 부엌이 혼재되어 있으며 그 변화의 양상은 거의 입식화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현농촌부엌이 농촌 거주자의 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공간이 거주자의 생활에 적합해야 한다는 공간과 생활과의 대응관점에서 농촌주택 부엌에 대한 물리적 측면과 생활적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농촌 거주자의 생활을 논농사 지역, 밭농사 지역 및 근교농촌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물리적 측면을 조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부엌가구 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농촌의 주거생활에 적합한 부엌의 개선 및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3단계 연구중 제1단계 연구이다. 1단계 연구의 목적은 현 농촌부엌의 실태를 물리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당시 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부엌의 변경요소와 단계를 파악한다.

2) 부엌의 물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현농촌 부엌의 유형을 분류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기초로 실증적 연구방법중 현지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조사방법, 조사시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농촌을 일반적 분류방법으로 논농사 지역, 밭농사 지역,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표성있는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표 1).

### 2. 조사 방법

거주자의 생활에 맞는 농촌주택의 부속공간 계획 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생활의 현황에 근거를 두고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현지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는데, 조사도구 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현지조사는 생활조사, 심층면접, 관찰, 실측, 스케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택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면접 및 관찰을 위한 조사도구<sup>2)</sup>는 문헌과 사전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주거학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 3. 조사 시기

본 조사를 위한 지역과 실시시기는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금성리 마을의 경우 1989년 8월 3일~1989년 8월 7일'이었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 1리 마을의 경우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는 1989년 7월 24일~1989년 7월 27일 이었고, 2차 조사는 1989년 8월 23일~1989년 8월 25일 이었다.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유방2리와 5리 마을은

〈표 1〉 선정된 지역의 특성

농 촌 특 성	위 치	주 택 수	직 업	소 득 수 준
논농사지역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금성리	72호 (조사주택 35)*	순수전업농가	농가평균소득수준
밭농사지역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 1리	62호 (조사주택 38호)*	순수전업농가	농가평균소득수준
근교농촌지역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유방 2리, 5리	88호(겸업가구의 주택 60호) (조사주택 30호)*	겸업 농가	농가평균소득수준

\*조사가 가능한 주택만 조사하였음.

1)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의 선정은 논·밭 경작지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도(道), 군단위에서 선정하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농업/비농업 인구, 논·밭 경작지 비율, 군청직원의 추천 및 교통의 편리성, 주민의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면(面)단위를 선정하였고, 마을의 주택 수 및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1개 마을인 리(里)단위를 선정하였다.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선정은 도시근교를 서술 주변지역으로 한정짓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있는 경기도의 11개군 중 용인군을 선정하였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도시화 경향이 뚜렷하고 행정의 중심지인 용인읍에서 농가호수, 주택수, 겸업가구수를 기준으로 리단위를 선정하였다.

1989년 8월 12일~1989년 8월 15일에 실시하였다.

### 4.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료집을 작성한후, 그 자료집에 기초하여 주택 및 가구의 일반사항과 부역의 규모, 구조, 재료, 설비, 시설 등에 관한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질적분석을 하였고, 그후 이를 설명하는 기술적(記述的)인 내용분석을 하였다.

2) 조사도구는 지역개황 조사표, 면접조사표(질문지), 관찰조사표의 세가지로 구성되었다.

### Ⅲ.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개요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연령대에 따른 인구분포

우리나라의 전체농가인구는 1967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3.3%씩 감소하여 왔으며, 1980년 이후에는 연간 4.4%씩 감소하여(이 정한외2인 1985), 1988년 현재 3,673,000명에 달하였다(노동부 1989). 연령별 농가인구의 구성은 청년층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장년층 및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3)</sup>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구성원중 가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부부의 연령을 파악한 결과 40~50대가 46.6%, 60대 이상이 36.9%, 20~30대가 16.5%로 40~50대와 60대 이상의 부부가 대부분이었다(표 2). 전북지역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았다. 강원지역에서는 20~30대의 젊은 부부가 많

이 거주하는 편이었고, 60대이상의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기지역에서는 40~50대, 60대 이상, 20~30대 순으로 나타났다.

#### 2) 가족형태

##### (1) 가족수

조사지역의 평균 가족수는 4.1인이며, 전북지역의 경우 3.6인, 강원지역의 경우 4.2인, 경기지역의 경우 4.6인이었다. 이는 1985년 전국농가의 평균 가족수가 4.4인 인것과 비교하여 볼때 도시근교의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가족수가 적었다.

이러한 가족수의 증감요인은 결혼, 분가, 출생, 타출(他出), 사망, 이전입동이 있는데, 농촌은 산아제한에 의한 출생률의 저하, 핵가족화에 따른 분가, 도시로의 유출인구의 증가 때문에 호당 평균 가족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 (2) 가족구성

조사지역의 가족구성은 2세대 가족(42.7%)과 3세대 가족(37.9%)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1세대 가족(18.5%), 4세대 가족(1.0%)이었다(표 3). 2세대 가

〈표 2〉 연령대에 따른 인구분포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부부연령층	전 북	강 원	경 기	계
20~30대	3 (8.6)	11 (29.0)	3 (10.0)	17 (16.5)
40~50대	15 (42.7)	18 (47.4)	15 (50.0)	48 (46.6)
60대 이상	17 (48.6)	9 (23.7)	12 (40.0)	38 (36.9)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 전라북도 금성리마을은 72사례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5사례의 주택을 조사함.

\*\* 강원도 용산1리 마을은 62사례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8사례의 주택을 조사함.

\*\*\*경기도 유방2리, 마을은 88사례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0사례의 주택을 조사함.

3) 청년층(20~30대)의 구성비는 1966년 48.2%, 1970년 44.6%, 1975년 39.6%, 1980년 36.8%, 1985년 34.4%, 1988년 29.6%였으며, 장년층(40~50대)의 구성비는 1966년 31.7%, 1970년 33.7%, 1975년 38.3%, 1980년 46.1%, 1985년 48.7%, 1988년 50.6%였고, 노년층(60대 이상)의 구성비는 1966년 5.0%, 1970년 6.0%, 1975년 7.7%, 1980년 10.0%, 1985년 13.8%, 1988년 17.9%였다.

족중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경우(39.8%)가 대부분이었고, 노부부+부부로 이루어진 경우는 2.9%였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가족형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농촌가족의 핵가족화, 가족수의 감소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 세대구성의 분포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전 북	강 원	경 기	계
1세대	부 부	-	1 (2.6)	-	1 (1.0)
	노부부 (50세 이상)	4 (11.4)	8 (21.1)	6 (20.0)	18 (17.5)
2세대	부부+자녀	17 (48.6)	17 (44.7)	7 (23.3)	41 (39.8)
	노부부+부부	2 (5.7)	-	1 (3.3)	3 (2.9)
3세대	노부부+부부+자녀	12 (34.3)	12 (31.6)	15 (50.0)	37 (37.9)
4세대	노부부+부부+ 자녀부부+손자녀	-	-	1 (3.3)	1 (0.97)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4〉 직업에 대한 분포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전 북	강 원	경 기	계
직업	농업 전업	25 (71.4)	31 (81.6)	9 (30.0)	65 (63.1)
	농업 겸업	5 (14.3)	2 (5.3)	14 (46.7)	21 (20.4)
	비 농업	5 (14.3)	5 (13.2)	7 (23.3)	17 (16.5)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3) 직업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직업중 전업농가는 1966년 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겸업농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었다.<sup>4)</sup>

조사지역의 가구당 직업은 농업에만 의존하는 전업농가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겸업농가가 20.4%, 그리고 비농

가가 16.5%였다(표 4).

4) 학력

조사지역의 부부에 대한 학력은 (표 5)와 같다. 남편의 경우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34명)이 가장 많았고, 주부의 경우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30명)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남편 2명, 주부 1명에 지나지 않아 교육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또한 응답하지 않은 경

4) 전업농가의 구성비는 1966년 89.8%, 1972년 81.9%, 1978년 81.6%, 1984년 81.0%, 1988년 77.6%, 1989년 75.6%였고, 겸업농가의 구성비는 1966년 10.2%, 1972년 15.1%, 1978년 18.4%, 1984년 19.0%, 1988년 22.4%, 1989년 24.4%였다.

5) 자료의 부족으로 조사지역과 전체농가의 부부 교육수준은 비교하지 못하였다.

〈표 5〉 부부 학력

단위 : 사례수(%)

학력		조사지역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남편	고등교육	—	—	2	2
	중등교육	13	9	12	34
	초등교육*	9	13	7	29
	무 학	1	1	—	2
	응답하지않음	8	15	8	31
계		31**	38	29***	98
주부	고등교육	1	—	—	1
	중등교육	7	8	10	25
	초등교육	13	10	7	30
	무 학	1	4	—	5
	응답하지않음	13	16	13	42
계		35	38	30	103

\* 서당교육도 초등교육에 포함시킴.

\*\* 전북지역의 4가구는 남편이 없음.

\*\*\*경기지역의 1가구는 남편이 없음.

우가 많았는데(남편 31명, 주부 42명), 대부분 학력이 낮아서 응답하기를 꺼려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교육수준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 5) 소득

조사지역의 소득에 관한 사항은 마을전체의 평균 소득만을 조사하고 전국농가의 소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농가소득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sup>6)</sup> 3개 조사지역의 1988년 소득액은 700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전국 농촌의 1988년 현재 연간 평균소득 8,130,000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sup>7)</sup> 또한 총소득액중 농

6) 조사지역의 소득에 관한 사항은 면접자 대부분이 응답을 꺼려하였고, 응답한 경우라 하더라도 순수입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게 응답하여 마을 전체의 평균소득으로 정리하였다.

7) 전국농촌의 농가소득은 1970년에 연간 소득액이 255,804원에 불과하였으나, 새마을운동, 고곡가정책, 식량증산, 축산 및 기타 소득 증대사업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여 1988년에는 연간 8,130,000원이었으며, 또한 총소득액중 농업의 소득의 비중이 1970년 24.2%, 1975년 18.1%, 1980년 34.9%, 1985년 35.5%, 1988년 39.6%로 점차 커지고 있다.

업의 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은 노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수 감소, 겸업농가 및 농업외 소득의 증가추세로 파악되었다.

### 2. 주택의 건축적 특성

#### 1) 건축 시기

주택의 건축시기에 대한 분포는 〈표 6〉과 같다. 건축시기가 1971~1980년인 주택이 33.0%로 가장 많았고, 1951~1960년인 주택이 10.7%이며, 1940년 이전과 1961~1970년인 주택은 각각 9.7%이고, 1981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8.7%, 1941~1950년에 건축된 주택은 3.9%로 나타났다. 이를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살펴보면 1961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전체의 51.4%이며,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4.3%였다. 따라서 주택의 내구연한을 30년이라고 볼때(하성규, 윤원근 1989), 조사지역의 주택중 24.3%가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지역은 197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많았는데(76.6%), 이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취락구조 개선 및 주택개량에 따

<표 6> 주택의 건축시기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건축시기	전 북	강 원	경 기	계
1940년 이전	5 (14.3)	4 (10.5)	1 (3.3)	10 (9.7)
1941~1950년	1 (2.8)	3 (7.9)	-	4 (3.9)
1951~1960년	5 (14.3)	5 (13.2)	1 (3.3)	11 (10.7)
1961~1970년	-	6 (15.8)	4 (13.3)	10 (9.7)
1971~1980년	5 (14.3)	7 (18.4)	22 (73.3)	34 (33.0)
1981년 이후	3 (8.6)	5 (13.2)	1 (3.3)	9 (8.7)
건축시기 미파악	16 (45.7)	8 (21.0)	1 (3.3)	25 (24.3)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른 것이며, 강원지역은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많았다(47.4%). 전북지역은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과 1971년 이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지어진 주택이 각기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31.4%, 22.9%). 조사결과 조사지역중에서 강원지역의 주택이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그 다음은 전북, 경기 지역의 순이었다.

조, 시멘트블럭조, 벽돌조 등으로, 그중 목구조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시멘트블럭조(18.5%), 벽돌조(5.8%)순이었다. 또한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북, 강원, 경기지역 모두 목구조의 분포가 가장 많아 아직 농촌주택의 구조체는 목구조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블럭조와 벽돌조에 있어서는 타지역에 비해 경기지역이 많았으며 이는 주택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 및 지붕재료

(1) 구조

주택의 구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구

(2) 지붕재료

안채의 지붕재료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와, 슬레이트, 슬레이트+합석, 슬레이트+콘크리트

<표 7> 주택의 구조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주택의 구조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목 구조	28 (80.0)	32 (84.2)	18 (60.0)	78 (75.7)
시멘트블럭조	5 (14.3)	6 (15.8)	8 (26.7)	19 (18.5)
벽 돌 조	2 (5.7)	-	4 (13.3)	6 (5.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8〉 주택의 지붕재료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안채의 지붕자료	전 북	강 원	경 기	계
기 와	4 (11.4)	6 (15.8)	21 (70.0)	31 (30.1)
슬 레 이 트	13 (37.1)	11 (29.0)	5 (16.7)	29 (28.2)
슬레이트+합석	5 (14.3)	-	-	5 (4.8)
슬레이트+콘크리트슬라브	1 (2.9)	-	-	1 (1.0)
합 석	10 (28.6)	21 (55.2)	-	31 (30.1)
콘크리트 슬라브	2 (5.7)	-	4 (13.3)	6 (5.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9〉 주택의 난방방식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안채 난방방식	전 북	강 원	경 기	계
장작 아궁이	8 (22.9)	32 (84.2)	1 (3.3)	41 (39.3)
장작 아궁이+연탄 아궁이	-	6 (15.8)	-	6 (5.8)
연탄 아궁이	6 (17.1)	-	-	6 (5.8)
장작 아궁이+연탄 보일러	8 (22.9)	-	15 (50.0)	23 (22.3)
연탄 보일러	8 (22.9)	-	14 (46.7)	22 (21.4)
기름 보일러	5 (14.3)	-	-	5 (4.9)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슬라브, 합석,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등 이었다. 이중 기와(30.1%)와 합석(30.1%)지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슬레이트 지붕(28.2%),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5.8%), 슬레이트+합석지붕(4.9%)순이었으며, 슬레이트+콘크리트 슬라브 지붕<sup>8)</sup>인 경우도 1사례가

있었다.

### 3) 난방방식

난방방식은 〈표 9〉에서와 같이 6가지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장작을 때는 아궁이가 39.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강원도 지역이 나무를 구하기 쉽고 교통의 미발달로 연탄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과 재래의 노후주택이 많아 난방방식의 변경이 적

8) 증축한 부분의 지붕을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한 것임.



고, 타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의 발전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작을 사용하는 재래식 아궁이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장작+연탄 보일러(22.3%), 연탄보일러(21.4%), 장작+연탄아궁이(5.8%), 연탄아궁이(5.8%), 기름보일러(4.9%)이었다.

장작을 때는 아궁이가 연탄아궁이 또는 연탄보일러와 겸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28.2%였고, 장작아궁이가 33.9%이었으므로 조사지역 주택의 68.0%가 아직도 재래의 장작아궁이를 난방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작 난방방식이 많은 이유는 연료비가 들지 않으며,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나무나 건초를 구하기 쉽고, 난방뿐 아니라 집안 행사시 취사용이나 쇠죽을 끓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이 원 1987).

4) 안채의 규모

주택의 규모를 거주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안채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표10>, 세지역 모두 대부분의 주택이 20평미만(77.7%)이었다. 따라서 조사지역 농촌주택의 거주공간 규모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5) 평면구성

조사지역에서 채취한 103사례의 주택평면에 대한

공간구성을 부영이 위치한 안채를 중심으로 부영 위치 및 공간구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북지역

전북지역에서 채취한 35사례의 주택평면에 대한 공간구성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크게 2가지의 형으로 분류되었다.

조사지역의 기본적인 평면형은 부엌+방+방+마루+ $\alpha$ 의 공간구성으로 35사례중 30사례이며, 이는 남부지방의 전통적인 평면형태인데, 일반적인 민가의 평면형태와 관련지어 보면 소농이나 소작농에게서 볼 수 있는 평면형태이었다(박연훈 1987). 이러한 조사지역의 기본적인 평면형태는 마루의 공간이 중부지역에 비해서는 미발달된 형태로 주로 부엌+방이 생활의 중심을 이룬다. 또한 기본형의 평면은 방, 곡간, 땅광, 창고, 광, 연탄광, 목욕탕 등의  $\alpha$ 공간이 증대되어지는 평면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건축된 개량형의 평면이 5사례 있었고, 이것은 기본형의 평면과 비교해 보면 마루(거실)의 공간이 발달하고, 현관, 목욕탕의 공간이 첨가되며, 난방을 위한 작은부엌이 마련되고 있으며, 부영의 위치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표 10> 주택의 안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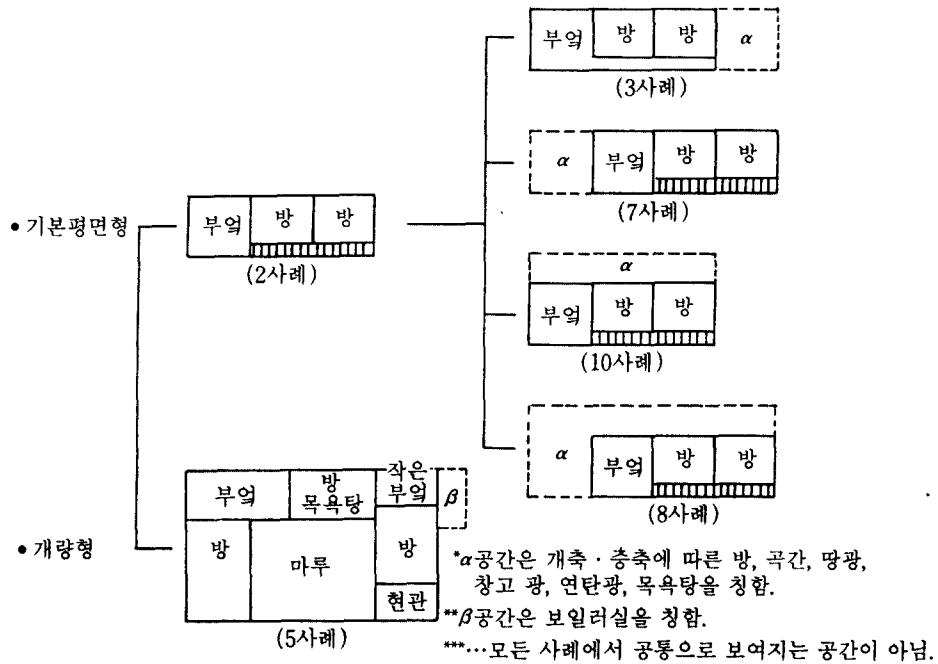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안채규모	전 북	강 원	경 기	계
20평 미만	28 (80.0)	34 (89.5)	18 (60.0)	80 (77.7)
20~30평 미만	5 (14.3)	3 (7.9)	8 (26.7)	16 (15.5)
30~40평 미만	-	1 (2.6)	-	1 (1.0)
안채규모 미과악	2 (5.7)	-	4 (13.3)	6 (5.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9) 최찬환(198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4년 조사에서는 안채가 10.66평이었으며, 1979년 조사에서는 11.51평으로 거주공간의 면적증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강원지역

조사지역의 기본적인 평면형은 부엌+방과 부엌+방+마루의 2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엌+방은 전체 38사례중 4사례이고, 부엌+방+마



〈그림 1〉 전북지역 주택의 평면구성

강원지역에서 채취한 38사례의 주택평면에 대한 공간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크게 3가지 형으로 분류되었다.

구<sup>㉞</sup>는 전체 38사례중 30사례였다. 이러한 평면형은 영동지방과 삼척지방의 강원도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형으로 점차 검집형으로 발전되어감을 볼 수 있고, 뒷마루 형식의 통로 구실을 하는 마루가 발전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지역의 기본평면형은 부엌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평면형태이며, 외부의 큰 기온차에 따른 온도변화 및 주변의 산악지형에 따른 외부 환경적 영향으로 외부의 공간보다는 내부의 생활공간을 중요시하는 평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악지대에서의 농경생활로 인한 특수성(소가 발농사를 지음)때문에 마구의 공간이 안채의 부엌과 연결되어 발달하였다. 그러나 조사지역에서는 마구가 있는 30사례중 8사례는 소를 키우지 않아 마구의 공간이 창고나 광으로 이용되며 방으로도 변경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81년 이후에 건축된 개량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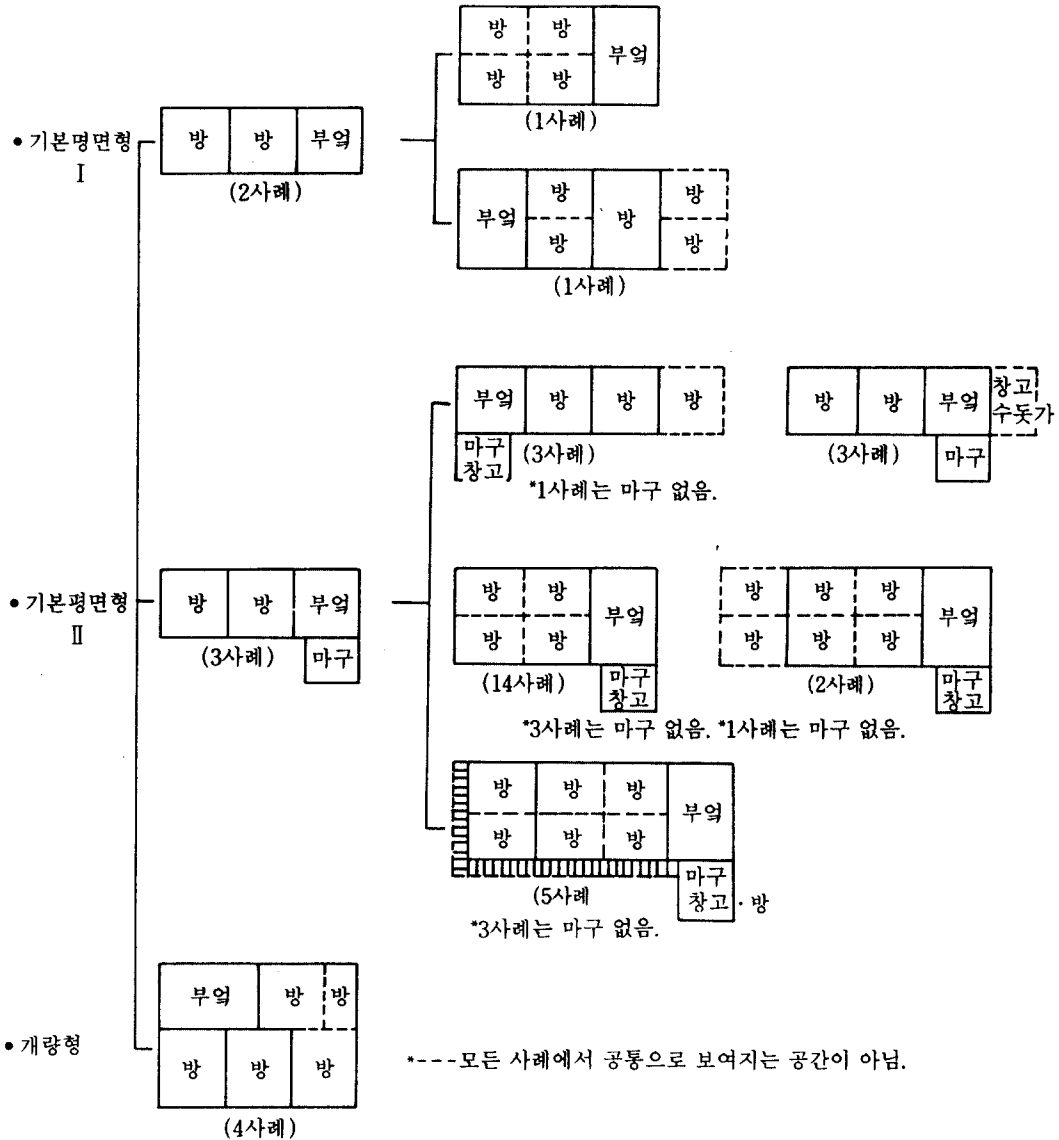
10) 마구란 소를 키우는 공간으로 조사지역에서는 마구, 마곡간, 외양간 등으로 불리워짐.

평면도 기본형의 평면과 비교해 보면 마구의 공간이 사라지고, 마루의 공간이 발달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고려되고, 부엌의 위치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기 지역

경기지역의 용인 유방 2리, 5리에서 채취한 30사례의 주택평면에 대한 공간구성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크게 4가지 형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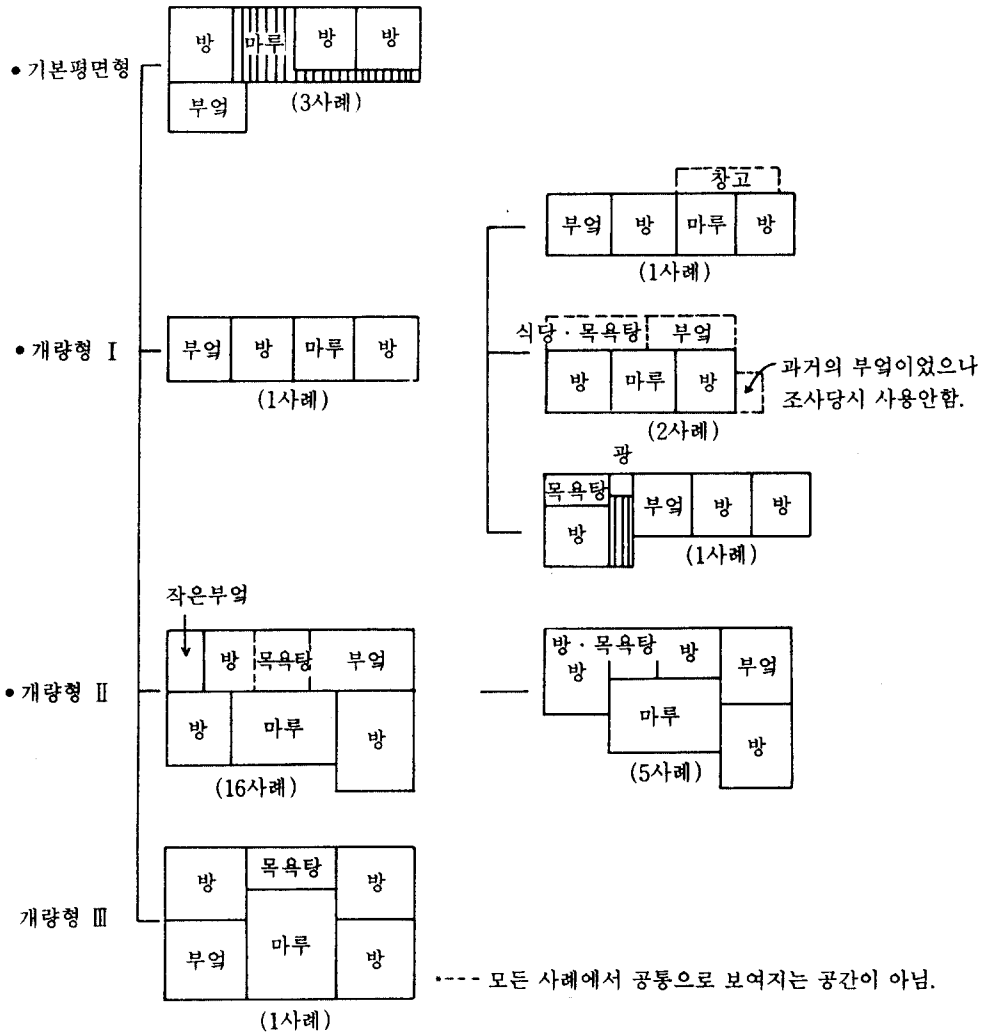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기본적인 평면형은 부엌+방+마루+방의 ㄱ자형 평면형태로 전체 30사례중 3사례이며, 이러한 평면형은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조사지역에서는 중부지방의 전통적 평면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평면에 비해 그 사례수가 적는데, 이는 조사마을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따른 주택개량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마을은 개량형의 평면형이 27사례이며, 이러한 빈도는 앞에서 본 전북, 강원지역의 한개 마을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경기지역의 개량형 평면은 3가지로 다시 세분화하여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림 3〉에서



<그림 2> 강원지역 주택의 평면구성

보는 바와 같이 개량형 I은 一자형으로 부엌+방+마루+ $\alpha$ 의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30사례 중 5사례이다. 개량형 I은 주택개량 당시 초기에 건축된 평면형태로 개량형 II와 III의 평면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따라서 창고, 목욕탕, 식당의 공간증축으로 평면을 변화시켰으며, 건축당시 부엌이 작아 새로 부엌을 증축한 경우도 있었다. 개량형 II의 평

면형은 조사마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평면형태로 전체 30사례 중 21사례였다. 평면의 형태는 一자형으로 부엌+방+마루+목욕탕의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1976년~1979년 표준형 농촌주택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된 형태였다. 개량형 III의 평면형은 1사례로 1976년에 건축되었으며 부엌+방+마루+목욕탕의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는 口



〈그림 3〉 경기지역 주택의 평면구성

자형이었다. 이러한 경기지역 조사마을에서 부엌의 위치는 기본 평면형과 개량형 I 과 III에서는 평면의 왼편에 위치하며, 개량형 II에서는 평면의 뒷편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3개 조사지역의 평면구성은 각 지역의 전통성을 반영한 기본적 평면형과 1970년대 이후 보여진 3개지역의 공통된 개량형의 평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부엌의 물리적 측면

부엌의 물리적 측면을 건축적 특성 및 부엌내 시설, 설비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변경내용을 파악하여 변경단계별 특성으로서 부엌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1. 건축적 특성

1) 크기

(1) 부업의 크기

조사지역의 부업크기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전북지역에서는 5명 이상 부업(28.6%)과 3~4명의 부업(25.7%)이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은 5명 이상 부업

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은 3~4명 부업이 50.0%로 가장 많았다. 조사지역의 부업크기는 1.5~9.5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그중 5명 이상이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다.

부업크기를 지역적으로 비교해 보면 강원지역이 전북과 경기지역에 비해 5명 이상의 부업이 많았으므로 강원지역의 부업크기가 타지역에 비해 크다고 할

<표 11> 부업크기의 분포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부업크기	전 북	강 원	경 기	계
2명 미만	-	1 (2.6)	-	1 (1.0)
2~3명 미만	5 (14.3)	2 (5.3)	4 (13.3)	11 (10.7)
3~4명 미만	9 (25.7)	8 (21.1)	15 (50.0)	32 (31.0)
4~5명 미만	9 (25.7)	6 (15.8)	3 (10.0)	18 (17.5)
5명 이상	10 (28.6)	21 (55.3)	4 (13.3)	35 (34.0)
부업크기 미파악	2 (5.7)	-	4 (13.3)	6 (5.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12> 안채에 대한 부업크기의 비율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안채에 대한 부업크기비율	전 북	강 원	경 기	계
20% 미만	8 (22.9)	1 (2.6)	10 (33.3)	19 (18.4)
20%~30% 미만	13 (37.1)	6 (15.8)	15 (50.0)	34 (33.0)
30%~40% 미만	9 (25.7)	12 (31.6)	1 (3.3)	22 (21.4)
40%~50% 미만	2 (5.7)	16 (42.1)	-	18 (17.5)
50% 이상	1 (2.9)	3 (7.9)	-	4 (3.9)
미 파 악	2 (5.7)	-	4 (13.3)	6 (5.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수 있다. 또한 경기지역은 전북과 강원지역에 비해 3~4평 크기의 부엌이 많았으므로, 경기지역의 부엌 크기는 타지역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2) 안채에 대한 부엌크기의 비율

조사지역의 부엌이 주택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12>와 같다. 전북지역과 경기지역의 경우 안채에 대한 부엌크기의 비율은 20~30%가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의 경우는 40~50%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강원지역은 주택크기에 대한 부엌크기의 비율이 타지역보다 큼을 알 수 있다.

2) 구조

(1) 바닥구조

부엌의 바닥구조는 <표 13>에서와 같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부엌의 바닥구조를 지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북과 경기지역은 실내공간과 바닥차이가 있고 부엌바닥 자체는 고저차이가 없는 경우가 각각 57.1%, 66.3%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은 실내공간과 바닥차이가 있으며 부엌바닥 자체도 고저차이가

있는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부엌 바닥구조는 바닥차가 있는 경우가 90.3%로 많았고, 바닥차가 없는 경우가 9.7%로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이 바닥차가 있는 것은 난방설비가 부엌내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공간과 부엌바닥의 높이차가 생기고 불을 때는 아궁이때문에 부엌바닥 한쪽이 경사져서 높이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2) 천정구조

부엌의 천정구조는 <표 14>와 같이 다락이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의 2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다락이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가 각각 48.6%와 51.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강원지역은 다락이 없는 경우가 97.4%였으며, 경기지역은 다락이 있는 경우가 63.3%였다. 강원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다락이 없는 구조가 많았고, 경기지역은 다락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3) 마감재료

(1) 바닥마감재료

<표 13> 부엌 바닥 구조의 현황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부엌의 바닥구조	전 북	강 원	경 기	계
실내공간과 바닥 차이가 있으며 부엌 바닥 자체도 고저차 있음	11 (31.4)	21 (55.3)	5 (16.7)	37 (35.9)
실내공간과 바닥차이가 있으나 부엌 바닥 자체는 고저차 없음	20 (57.1)	17 (44.7)	19 (66.3)	56 (54.4)
실내공간과 바닥 차이가 없으며 부엌 바닥 자체도 고저차 없음	4 (11.5)	-	6 (20.0)	10 (9.7)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14> 다락 유무에 따른 천정 구조의 현황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부엌천정의 구조(다락유무)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다 락 없 음	17 (48.6)	37 (97.4)	11 (36.7)	65 (63.1)
다 락 있 음	18 (51.4)	1 (2.6)	19 (63.3)	38 (36.9)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바닥마감재료는 <표 15>에서와 같이 흙, 시멘트몰탈, 비닐류의 3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전북과 강원지역은 흙인 경우가 각각 42.8%, 86.8%로 많았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비닐류가 63.3%로 많았다. 또한 강원지역은 비닐류의 마감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없고, 경기지역은 흙의 마감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없어, 강원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재래형 부엌<sup>㉓</sup>의 상태에 머

무르고 있고, 경기지역은 보다 개선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천정 마감재료

천정의 마감재료는 <표 16>에서와 같이 벽지, 나무판, 베니어판, 모노륨,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강원지역은 천정을 마감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5.7%, 71.1%로 많았고, 경기지역

<표 15> 부엌 바닥 마감재료 현황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바닥마감재료	전 북	강 원	경 기	계
흙	15 (42.8)	33 (86.8)	-	48 (46.6)
시멘트몰탈	10 (28.6)	5 (13.2)	11 (36.7)	26 (25.2)
비닐류	10 (28.6)	-	19 (63.3)	29* (28.2)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3사례의 경우는 일부는 시멘트몰탈 마감에 비닐장판 감.

<표 16> 부엌 천정 마감재료 현황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천정 마감재료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마감이 되지 않음 (연등천정*, 슬레이트, 합석)	16 (45.7)	27 (71.1)	-	43 (41.7)
나무판	2 (5.7)	9 (23.7)	12 (40.0)	23 (22.3)
베니어판	5 (14.3)	2 (5.2)	13 (43.3)	20 (19.4)
페인트	7 (20.0)	-	-	7 (6.8)
모노륨	-	-	2 (6.7)	2 (1.9)
벽지	5 (14.3)	-	3 (10.0)	3 (7.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 연등천정은 내면이 곧 천정면인 원시형 천정으로 서까래가 노출되고, 서까래 사이에 회회 혹은 흙을 바른 형태의 천정을 칭함.

11) 재래형 부엌이란 부엌내에 부뚜막과 나무때는 아궁이가 있고, 바닥의 고저차가 있으며, 상·하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바닥, 벽, 천정이 마감되지 않은 형태의 부엌을 칭한다.

은 베니어판이 43.3%, 나무판으로 마감한 경우가 40.0%로 많았다. 따라서 천정 마감재료도 바닥 마감재료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이 개선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난방 설비 분리

전통적인 재래 농촌주택의 부엌에는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아궁이 시설이 있으므로 부엌내에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점차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조사지역에서의 부엌내 부엌내에 있는지 여부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부엌내에 장작 및 연탄아궁이, 보일러의 난방설비를 갖춘 경우는 전북지역이 60%, 강원지역이 97.4%, 경기지역이 60%여서 아직도 부엌으로 부터 난방설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부엌에서 난방설비가 분리된 경우가 2.6%로 타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낮았다.

## 2. 부엌내의 시설·설비

## 1) 작업대 시설

## (1) 상·하수설비(개수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하수설비에 대한 실태는 4가지로 분류되었다. 전북지역은 타일·시멘트로 마감된 개수대위에 상·하수설비가 갖추어진 경우가 57.1%로 많았고, 강원지역은 상·하수설비가 없는 경우가 71.9%로 많았다. 그리고 강원지역은 공장제품의 싱크대에 상·하수를 설비한 경우가 없었고, 경기지역은 상·하수설비가 없는 경우가 한 사례도 없었다.

전체 사례중에서는 타일·시멘트로 마감된 개수대위에 상·하수를 설비한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설비가 없는 경우가 28.2%로 많았다. 이와 같은 상·하수설비중에서 입식의 형태는 타일·시멘트로 마감된 개수대와 공장제품 싱크대에 상·하수를 설비한 경우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였다.

&lt;표 17&gt; 부엌내 난방설비 분리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난방분리여부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부엌내 난방설비 있음	21 (60.0)	37 (97.4)	18 (60.0)	76 (73.8)
부엌내 난방설비 없음	14 (40.0)	1 (2.6)	12 (40.0)	27 (26.2)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lt;표 18&gt; 부엌내 상·하수 설비(개수대)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상·하수(개수대)설비	전 북	강 원	경 기	계
상·하수 설비 없음	2 (5.7)	27 (71.0)	-	29 (28.2)
상수, 또는 하수 설비만 있음	1 (2.9)	5 (13.2)	8 (26.7)	14 (13.6)
타일·시멘트몰탈로 마감된 개수대위에 상·하수 설비	20 (57.1)	6 (15.8)	7 (23.3)	33 (32.0)
공장제품 싱크대위에 상·하수 설비	12 (34.3)	-	15 (50.0)	27 (26.2)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표 19〉 부업내 조리대 시설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조리대시설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부 뚜. 막	-	5 (13.2)	2 (6.7)	7 (6.8)
나무 부뚜막+시멘트몰탈 마감조리대 타일	18 (51.4)	32 (84.2)	9 (30.0)	59 (57.3)
나무 시멘트몰탈 마감 조리대 타일	7 (20.0)	1 (2.6)	4 (13.3)	12 (11.6)
공장제품의 조리대	10 (28.6)	-	15 (50.0)	25 (24.3)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2) 조리대 시설

조리대 시설에 대한 실태는 〈표 19〉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었다.

전북과 강원지역은 부뚜막+나무·시멘트몰탈·타일마감된 조리대의 시설이 각각 51.4%, 84.2%였으며, 경기지역은 공장제품 조리대가 50.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북지역은 조리대 시설이 부뚜막만 있는 경우와 강원지역은 공장제품 조리대를 갖춘 경우가 없었다.

이와 같은 조리대 시설중에서 부업내 재래식 부뚜막이 아직 남아 있어 조리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

체의 64.1%였다. 이중에서 부뚜막만이 조리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6.8%로 극히 적었고, 대부분이 부뚜막에 입식형 나무·시멘트몰탈·타일로 마감된 조리대가 있는 경우였다. 부업에서 부뚜막을 조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35.9%로, 이는 입식의 조리대 시설(나무·시멘트몰탈·타일 조리대 / 공장제품의 조리대)이 갖추어진 형태였다. 그런데 이러한 입식형태의 조리대 시설이 강원지역에서는 2.6%로 타지역에 비해 조리대 시설에 대한 입식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 가열대 시설

〈표 20〉 부업내 가열대 시설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가열대시설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부엌바닥이나 부뚜막위에 가스레인지 설치	2 (5.7)	8* (21.1)	4 (13.3)	4 (13.6)
나무·시멘트·타일로 마감된 가열대나 조리대에 가스레인지 설치	20 (57.1)	27 (71.0)	9 (30.0)	56 (54.4)
공장제품에 가스레인지 설치	13 (37.1)	3 (7.9)	17 (56.7)	33 (32.0)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1사례는 가스레인지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으며 아궁이만 사용.

가열대 시설은 취사열원의 변화와 가스레인지 보급에 따라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표 20>에서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었다.

전북과 강원지역은 나무·시멘트·타일로 만든 가열대나 조리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경우가 각각 57.1%와 7.1%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은 공장제품의 가스레인지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강원지역은 공장제품의 가스레인지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경우가 7.9%로 전북(37.1%)과 경기(56.7%)에 비해 매우 적었다. 또한 강원지역의 2.6%(1 사례)는 가스레인지가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34.2%(13 사례)는 가스레인지와 함께 화로의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가열대 시설중 전체의 54.4%는 나무·시멘트몰탈·타일로 만든 가열대나 조리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경우이고, 전체의 32.0%는 공장제품의 가스레인지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형태였다. 따라서 전체의 86.4%가 입식형태의 가열대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중 강원지역은 상·하수 및 조리대 시설 현황과 마찬가지로 가열대 시설의 입식화에 대한 발달이 타지역에 비해 늦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의 부엌 작업대 시설(상·하수 설비(개수대), 조리대, 가열대)현황은 입식의 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거주자가 직접 만든 작업대 시설(나무·타일·시멘트몰탈 작업대)이 전체의 30~60%를 차지하였고, 상품화된 공장제품의 입식작업대 시설이 20~30%정도로 아직은 거주자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입식의 작업대 시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작업대에 대한 공장제품의 사용 실태는 가열대가 32.0%, 상·하수설비(개수대)가 26.2%, 조리대가 24.2%로 가열대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가열대 시설이 공장제품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취사열원이 가스로 바뀌는 추세에 의해 가스레인지의 구입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대의 필요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수납 및 기타시설

### (1) 수납시설

부엌내 갖추어진 수납시설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전북지역은 부엌내 수납 시설로 찬장(40.0%)과 공장제품의 상·하부수납장(22.9%)이 많았고, 강원지역은 찬장(78.9%)과 찬장+공장제품의 하부수납장(7.9%), 수납시설이 없음(7.9%)이 많았다. 그리고 경기지역은 찬장+공장제품의 상·하부수납장(30.0%)과 찬장(26.7%)이 많았다. 그런데 강원지역의 경우는 대부분의 수납시설이 찬장정도로 수납시설이 부족하였는데, 이 부족한 수납시설은 부엌의 바닥이나 부뚜막위에 수납물을 놓아두거나 벽에 걸어두는 형태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수납시설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였다. 그리고 전북과 경기지역 역시 부엌이 바닥, 부뚜막 위, 벽걸이 작업대등 위에 수납물을 그대로 놓아 두어 수납시설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원지역에 비해서는 두가지 이상의 수납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다 정리된 부엌공간이었다.

또한 부엌의 수납시설에서 공장제품의 수납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35.0%이고, 그중 22.3%는 찬장과 그 외의 수납시설도 갖추고 있는 형태였다. 따라서 아직 조사지역에서 부엌의 수납시설은 완전한 입식화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능률적이며,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부엌공간의 계획을 위하여는 수납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식탁가구

부엌내 식탁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부엌내 식탁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전북지역이 82.9%, 강원지역이 100%, 경기지역이 73.3%였고, 부엌내 식탁이 설치된 경우는 전북지역이 17.1%, 경기지역이 26.7%였다. 이와같이 조사지역의 농촌부엌에 있어서 식탁이 설치된 「DK」형의 부엌은 전북과 경기지역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 3. 부엌의 변경내용과 유형분류

부엌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엌의 건축적 특성과 시설·설비측면에 대한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식화 과정을 파악한 후 부엌시설 특성에 따라 부엌의 유형을 분류한다.

〈표 21〉 부역내 수납시설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수납시설	전 북	강 원	경 기	계
수납시설이 없음*	-	3 (7.9)	1 (3.3)	4 (3.9)
찬 장**	14 (40.0)	30 (78.9)	8 (26.7)	52 (50.5)
시멘트·타일마감의 작업대 하부 수납장	1 (2.9)	-	-	1 (1.0)
공장제품의 상·하부 수납장	8 (22.9)	1 (2.6)	4 (13.3)	13 (12.6)
찬장+시멘트·타일마감의 작업대 하부 수납장	6 (17.1)	1 (2.6)	3 (10.0)	10 (9.7)
찬장+시멘트·타일 마감작업대 하부수납장+ 공장제품하부수납장	1 (2.9)	-	-	1 (1.0)
찬장+공장제품 하부 수납장	2 (5.7)	3 (7.9)	9 (30.0)	14 (13.6)
찬장+공장제품 상·하부 수납장	3 (8.6)	-	5 (16.7)	8 (7.8)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 수납시설이 없음이란 일정한 수납장이 없어 부역의 부뚜막과 선반위, 바닥 및 작업대위에 그릇과 음식등을 늘어놓거나, 벽에 못을 박아 걸어둔 경우를 칭함.

\*\*찬장은 그릇과 음식을 수납하는 장으로 조사지역에서는 베니어장, 붙박이장, 차단스 형태의 장을 칭함.

1) 물리적 측면의 변경내용

(1) 건축적 특성

① 부엌크기의 변경

부엌크기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엌크기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았는데, 부엌크기를 변경한 경우는 5사례였다. 전북지역에서

1986년에 크기를 줄인 경우가 1사례였고, 강원지역에서 1989년에 크기를 늘린 경우가 1사례였으며, 경기지역에서 크기를 늘린 경우가 1980년, 1987년, 1988년에 각각 1사례씩 있었다.

변경하기 이전의 부엌크기는 파악할 수 없으나 새로 변경한 부엌크기는 3~6평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표 22〉 부역내 식탁설치 현황

단위 : 사례수(%)

조사지역 식탁설치여부	전 북	강 원	경 기	계
부역내 식탁이 있음	6 (17.1)	-	8 (36.7)	14 (13.6)
부역내 식탁이 없음	29 (82.9)	38 (100.0)	22 (73.3)	89 (86.4)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지역의 부엌크기가 1.5평에서 9.45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부엌크기는 부엌내 다른 시설·설비에 비해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5사례에 대한 변경내용과 시기만으로는 실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② 구조의 변경

ㄱ. 바닥구조

부엌 바닥구조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고, 그 내용은 부엌 바닥의 높이차를 없애고 실내공간과의 높이와 같게 하려는 추세였다.

ㄴ. 천정구조

천정의 구조를 변경한 예는 전북지역에서 1988년에 1사례만이 있었는데 이는 부엌면으로 돌출된 다락부분을 없앤 경우였다. 천정구조의 변경은 바닥구조의 변경에 비해 그 변경사례가 매우 적었다.

③ 마감재료의 변경

ㄱ. 바닥 마감재료

바닥 마감재료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 마감재료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바닥 마감재료에 대한 변경사례는 총 14사례로 흙에서 시멘트몰탈로 변경한 경우가 8사례, 흙에서 비닐류로 변경한 경우가 1사례, 시멘트몰탈에서 비닐류로 변경한 경우가 5사례였다. 흙에서 시멘트몰탈로의 변경은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흙에서 비닐류로의 변경과 시멘트몰탈에서 비닐류로의 변경은 198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를 지역적으로 비교해보면 강원지역은 흙에서 시멘트몰탈로 변경한 1사례외에는 변경한 경우가 없으므로 타지역에 비해 바닥 마감재료면에서 발전이 늦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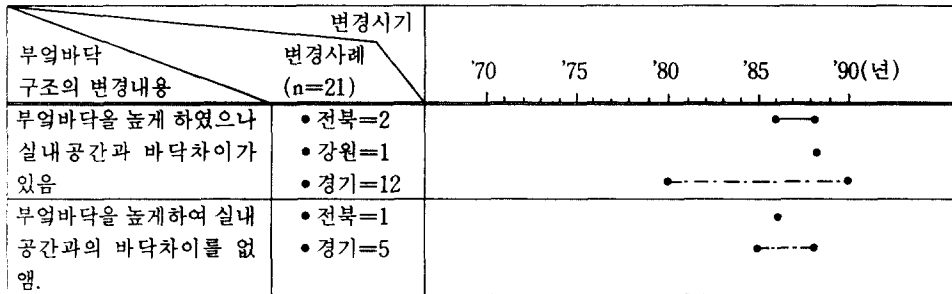
ㄴ. 천정 마감재료

천정 마감재료를 변경한 경우는 5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연등천정에서 베니어판, 슬레이트, 나무판 등으로 변경한 경우와 나무판에서 베니어판으로 변경한 경우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연등천정에서 베니어판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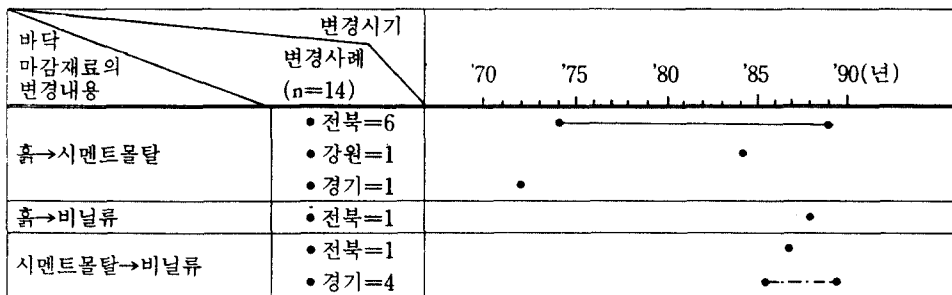
<그림 4> 바닥 구조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 전북 .....강원 ---경기



<그림 5> 바닥마감재료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 전북 .....강원 ---경기



한 경우가 2사례 있었고(1984년, 1986년), 1986년에 지붕을 개량하면서 연등천정에서 슬레이트로 변경한 경우가 1사례 있었다. 강원지역에서는 1983년에 연등천정에서 나무판으로 변경한 경우가 1사례 있었고, 경기지역에서는 1989년에 나무천정에서 베니어 판으로 변경한 경우가 1사례 있었다. 천정 마감재료에 대한 변경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바닥 마감재료의 변경에 비해 변경사례가 매우 적었다.

④ 난방설비의 변경

부업에서 난방설비를 분리하는 경우(27사례), 그 분리방법은 주로 부엌뒤로 아궁이를 빼고 새마을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부엌옆에 땅광·보일러실등을 만들어 아궁이를 분리시키는 방법(20사례)이었다. 그외의 난방분리 방법은 신속시 난방방식을 설치하는 방법(7사례)이었다. 그리고 전북과 경기지역의 경우 부업에서 난방의 분리가 이루어짐은 40% 정도로 점차 부업에서 난방을 분리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7).

2) 부업내의 작업대 시설

① 상·하수설비(개수대)의 변경

부업내 상·하수설비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상·하수설비의 변경사례는 총 48사례로 그 변경내용의 대부분이 입식시설(타일·시멘트몰탈 개수

대 / 공장제품 싱크대)로의 변경이며, 이는 1980년대에 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상·하수설비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수도없음→타일·시멘트몰탈 개수대, 수도없음·공장제품의 싱크대로 변경이 되어, 현재 개수대에 대한 변경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에 들어와 수도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입식의 시설로 변경되었다.

또한 입식으로의 변경중 공장제품 싱크대로의 변경은 보다 최근에 이루어졌으므로, 거주자는 점차 공장제품의 입식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경우는 아직 공장제품 싱크대로의 변경예가 없어, 다소 늦게 상·하수설비의 입식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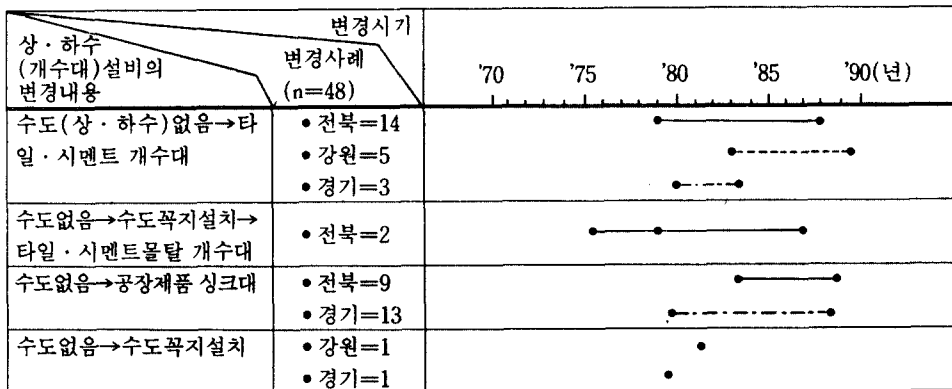
② 조리대 시설의 변경

부업내 조리대 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고, 그 내용은 주로 입식의 조리대 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조리대 시설의 변경사례는 총 45사례로 그 변경내용이 입식시설 없음의 상태에서 바로 입식시설(나무·시멘트몰탈·타일조리대 / 공장제품 조리대)로의 변경이며, 이는 주로 1980년대에 변경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북지역에서 입식으로의 변경추세는 1979년부터 보여졌고, 그 변경사해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는 입식으로의 추세중 공장제품으로의 변경이 1979년부터 이루어져 타지역에 비해 보다 발전된 조리대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

<그림 6> 상·하수 설비(개수대)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 전북 .....강원 - - - 경기



〈그림 7〉 조리대 시설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 전북 .....강원 -.-경기

조리대 시설의 변경내용	변경사례 (n=45)	변경시기				
		'70	'75	'80	'85	'90(년)
입식의 조리대시설없음→나무·시멘트몰탈·타일의 조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20</li> <li>•강원=1</li> <li>•경기=1</li> </ul>	*강원지역 변경사례는 변경시기 조사 불가.				
입식의 조리대시설없음→공장 제품의 조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7</li> <li>•경기=14</li> </ul>					
부엌내 조리대 시설없음→부엌 이외의 공간에 조리대 시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1</li> </ul>					

〈그림 8〉 가열대 시설의 변경 내용과 변경시기

— 전북 .....강원 -.-경기

가열대 시설의 변경내용	변경사례 (n=45)	변경시기				
		'70	'75	'80	'85	'90(년)
가열대 시설없음→나무·시멘트·타일작업대 / 기타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16</li> <li>•경기=2</li> </ul>					
가열대 시설없음→공장제품의 가열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11</li> <li>•강원=12</li> <li>•경기=14</li> </ul>	**강원지역 변경사례는 변경시기 조사 불가				

\*기타 시설물이란 TV대, 앵글조립대임.

다. 강원지역은 입식으로의 변경이 1사례밖에 없어 조리대의 입식화 추세가 타지역에 비해 늦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리대 시설의 변경은 앞서 살핀 상·하수설비의 변경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입식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인 비교에서도 경기, 전북, 강원 순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가열대 시설의 변경

부엌내 가열대 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9〉와 같고, 그 내용은 입식의 가열대 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가열대 시설의 변경 사례는 총 45사례로 그 변경내용이 가열대 시설없음에서 있음의 형태로 바뀐 것이고, 이때 가열대의 시설은 나무·시멘트몰탈·타일작업대와 기타 입식시

설물 및 공장제품 가열대등의 입식시설로 갖추어졌으며, 주로 1979년 이후에 변경되었다. 개수대·조리대의 변경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열대의 시설도 거주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보다 발달된 공장제품의 입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당시의 상황에 맞게 입식의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열대의 변경을 지역적으로 보면 전북지역은 1979년부터 개량입식<sup>12)</sup>으로의 변경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1984년부터는 공장제품의 입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경기지역은 1979년부터 공장

12) 개량입식이란 재래식 부엌의 입식의 작업대 시설중 거주자가 만든 타일·시멘트몰탈·나무의 작업대 및 기타 시설물(TV대, 안쓰는 책상, 앵글, 여물통 등)을 설치한 형태를 칭한다.

제품 입식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져 타지역에 비해 보다 앞선 가열대의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변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가열대 시설의 변경이 적고, 가스레인지 구입 후에도 특정한 가열대의 설치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작업대에 그대로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므로 강원지역은 가열대 시설의 입식화가 늦게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2) 물리적 측면의 변경관계와 입식화

(1) 건축적 특성과 작업대 시설의 변경관계

조사지역 거주자는 부역의 구조, 재료, 공간의 크기, 난방분리, 작업대 등 각요소를 변경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경은 서로간의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부역 변경 요소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역에서 가장 변경이 많았던 작업대의 시설<sup>13)</sup>을 중심으로 부역의 다른 물리적 측면(구조, 재료, 공간의 크기, 난방분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대 시설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주자는 이러한 시설을 변경할 때 한가지 요소만 변경하거나 두가지 또는 세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작업대 시설의 변경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부역의 물리적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첫째, 한가지의 작업대 시설을 변경한 경우는 14사례이며, 그중 개수대 부분만을 개량입식으로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8사례), 이때 바닥마감재료를 함께 변경한 경우는 8사례중 2사례였다. 그리고 가열대를 개량입식이나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바닥의 구조(바닥올림)와 바닥마감재료를 변경하거나 또는 크기를 늘리거나 난방을 분리한 경우가 각각 1사례 있었다.

둘째, 두가지의 작업대 시설을 변경한 경우는 9사례이며, 그중 개수대 부분과 함께 조리대 및 가열대를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사례), 이때 바닥재

료와 바닥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수대와 가열대를 동시에 공장제품으로 변경한 경우중 1사례는 난방분리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리대와 가열대를 함께 변경한 경우는(3사례) 천정마감재료와 바닥구조의 변경이 각각 이루어졌다.

셋째, 세가지의 작업대 시설을 변경한 경우는 34사례이며, 그중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를 모두 공장제품의 입식가구를 구입하여 변경한 경우가 19사례로 가장 많았다. 세가지의 시설이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되면서 부역이외로 난방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5사례), 그다음으로는 바닥의 구조 변경(12사례), 바닥의 마감재료 변경(5사례), 공간크기의 확대(2사례), 천정의 마감재료변경(1사례), 공간크기 축소(1사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의 세가지 시설을 거주자가 임의로 만든 개량입식의 형태로 변경되어진 경우가 14사례였다. 이러한 개량입식으로의 변경중 난방분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4사례이고, 그다음으로는 바닥의 마감재료(3사례), 바닥의 구조(1사례), 천정의 마감재료 변경(1사례)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부역의 작업대 시설이 개량입식과 공장제품 입식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부역의 구조, 재료, 크기, 난방설비도 함께 변경되었다. 따라서 거주자는 현재 농촌부역에 대해 작업대 시설의 입식화와 함께 부역의 건축적 측면에 대한 개량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경관계에서 본 입식화

작업대 시설의 입식화는 크게 개량입식과 공장제품 입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각각의 입식화에 따라 거주자는 부역의 건축적 특성을 어떻게 변경시켰는지를 파악하면 <표 24>와 같다.

개량입식으로 세가지의 작업시설을 변경하여 부역을 개량할 경우는 난방분리, 바닥마감재료, 바닥구조, 천정재료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장제품의 입식으로 세가지의 작업시설을 변경하여 부역을 개량할 경우는 난방분리, 바닥구조, 바닥마감재료, 크기, 천정재료, 천정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재래식 부역에서 작업대 시설을 입식화할 때는 난방분리와 바닥구조, 바닥재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3) 부역 변경사례중 크기는 5사례, 바닥구조는 21사례, 천정구조는 1사례, 바닥마감재료는 14사례, 천정마감재료는 5사례. 난방분리는 27사례이었고, 작업대의 변경은 개수대가 48사례, 조리대가 45사례, 가열대가 45사례였다.

〈표 23〉 작업대 시설의 변경에 따른 구조·재료·크기의 변경관계

단위 : 사례수

작업대 시설의 변경내용	구조		재료		크기 (확대/축소) (n=5)	난방 분리 (n=26)
	바닥 (n=21)	천정 (n=1)	바닥 (n=14)	천정 (n=5)		
한가지 시설의 변경 (n=14)	개수대만을 개량 입식으로 변경(n=8) 조리대만을 개량 입식으로 변경(n=2) 가열대만을 개량 입식으로 변경(n=1) 가열대만을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n=3)		2			1
두 가지 시설의 변경 (n=9)	개수대·조리대를 개량 입식으로 변경(n=1) 개수대·가열대를 개량 입식으로 변경(n=1) 조리대·가열대를 개량 입식으로 변경(n=2) 개수대를 개량입식으로, 가열대를 공장제품입식으로 변경(n=1) 개수대·조리대를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n=1) 개수대·가열대를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n=2) 조리대·가열대를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n=1)		1	1		1
세가지 시설의 변경 (n=34)	개수대·조리대를 개량 입식으로, 가열대를 공장제품으로 변경(n=1) 개수대·조리대·가열대를 개량 입식으로 변경(n=14) 개수대·조리대·가열대를 공장제품 입식으로 변경(n=19)	1	3	1	확대1 축소2	4 15

〈표 24〉 입식화로의 부엌 변경 상태

입식화의 추세	부엌 변경 상태		
개량 입식화	1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수대</li> <li>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닥재료</li> <li>바닥의 구조/재료</li> </ul>
	2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수대+조리대</li> <li>개수대+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닥재료</li> <li>천정재료</li> </ul>
	3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수대+조리대+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방분리/바닥재료</li> <li>바닥의 구조/천정재료</li> </ul>
공장제품 입식화	1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방분리</li> </ul>
	2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수대+조리대</li> <li>개수대+가열대</li> <li>조리대+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닥구조</li> <li>바닥재료/난방분리</li> <li>바닥구조/천정재료</li> </ul>
	3개 작업대 시설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수대+조리대+가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방분리/바닥구조/바닥재료/규모</li> <li>천정재료·구조</li> </ul>

또한 부엌의 입식화에서 개량입식은 개수대와 가열대의 변경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장제품의 입식은 가열대의 변경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

서 두가지의 입식화 경우 모두 가열대의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가스레인지의 보급에 의해 취사와 난방열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거주자



〈표 25〉 부역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단위 : 사례수 (%)

조사지역 부역유형	전 북	강 원	경 기	계
I형 상하수설비 없음+부뚜막	-	5 (13.2)	1 (3.7)	6 (6.1)
II형 상하수설비 없음+부뚜막+타일·시멘트몰탈·나무 조리대	1 (3.0)	26 (68.4)	4 (14.8)	31 (31.6)
III형 상하수설비 없음+타일·시멘트몰탈·나무 조리대	2 (48.5)	1 (15.89)	2 (18.5)	5 (27.6)
IV형 타일·시멘트몰탈 개수대+부뚜막+타일·시멘트몰탈·나무 조리대	16 (48.5)	6 (15.8)	5 (18.5)	27 (27.6)
V형 타일·시멘트몰탈 개수대+타일·시멘트몰탈·나무 조리대	4 (12.1)	-	1 (3.7)	5 (5.1)
VI형 공장제품 개수대+공장제품 조리대	10 (30.3)	-	14 (51.1)	24 (24.5)
계	35 (100.0)	38 (100.0)	30 (100.0)	103 (100.0)

의 요구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역을 입식화하고자 할때는 작업대 시설의 변경과 함께 난방설비 및 바닥의 구조, 재료에 대한 건축적 요소가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역의 크기 및 천정재료, 구조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부역의 유형분류

거주자는 부역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경하였으며, 그러한 변경중 부역의 작업대 시설에 대한 변경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개수대에 대한 변경이 48 사례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개수대 시설과 취사작업의 중심이 되는 조리대 시설을 부역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요인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부역의 형태를 분류하면 〈표 25〉와 같다.

조사지역의 부역은 크게 6가지의 유형<sup>10)</sup>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역유형은 부역의 시설에 대한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I형은 개수대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설비가 없고, 조리대의 시설로는 부뚜막 만이 있는 형태이다. II형은 I형에 거주자가 임의로 만든 나무·시멘트몰탈·타일 등의 조리대가 첨가되는 형태이고, III형은 상·하수 설비가 없고 나무·시멘트몰탈·타일등의 조리대가 있는 형태이다. IV형은 타일·시멘트몰탈의 개수대에 상·하수도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부뚜막이 있으며 나무·시멘트몰탈·타일등의 조리대가 있는 형태이다. V형은 타일·시멘트몰탈의 개수대에 나무·시멘트·타일의 조리대가 있는 형태이며, VI형은 공장제품의 개수대와 조리대를 설치한 형태의 부역이다. 따라서 부역유형은 I형에서 VI형으로 갈수록 발전된 형태

과 같이 예외적이므로 제외하였다. A<sub>23</sub>, C<sub>24</sub>는 공장제품 개수대+나무작업대, A<sub>22</sub>는 공장제품 개수대+부뚜막+나무작업대, C<sub>9</sub>는 상하수 설비중 상수시설 없음+공장제품 작업대, C<sub>22</sub>는 시멘트마감 개수대+부뚜막이었다.

14) 조사당시의 부역 실태를 근거로 분류한 유목중 5사례 (A<sub>23</sub>, A<sub>22</sub>, C<sub>9</sub>, C<sub>24</sub>, C<sub>22</sub>)는 개수대와 조리대 시설이 다음

이다.

이러한 6가지 부엌유형중 전북지역은 IV형과 VI형이 각각 48.5%와 30.3%로 많았고, 강원지역은 II형과 IV형이 68.4%, 15.8%로 많았다. 그리고 경기지역은 VI형과 IV형이 51.9%, 18.5%로 많았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부엌이 가장 발전된 단계에 있고, 그 다음은 전북지역이며, 강원지역은 II형과 같은 재래형태의 부엌이 많아 타지역에 비해 다소 발전이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부엌에 대한 물리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고, 현농촌 부엌의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농촌부엌의 변화는 크게 건축적 측면과 시설측면에서 나타났는데, 그 변화의 양상은 입식형 부엌으로의 개조이다. 건축적 측면에서의 변화요소는 바닥구조, 바닥재료, 상·하수설비, 난방설비이며, 그 내용은 바닥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엌바닥 차이를 없애고, 동시에 실내공간과 동일한 바닥 마감재료(비닐류)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설비에 있어서는 부엌내에 상·하수설비를 구비하는 것과 난방설비를 부엌밖으로 이전하여 취사설비와 분리하려는 경향이였다.

시설측면에서의 변화요소는 작업대와 수납공간이며, 그 내용은 부뚜막을 없애고 공장제품의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를 설치하는 입식작업대 설치와 부엌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부엌의 건축적 측면과 시설 측면은 입식형 부엌으로의 개조시 서로 상호관련성을 갖고 변

경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엌의 물리적 측면중 개수대 시설과 조리대 시설을 기준으로 조사지역의 부엌은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유형들은 부엌의 시설에 대한 발전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엌의 개조는 농촌 생활에 적합해야 하며, 그 생활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엌에 대한 생활적 측면에서의 차기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기초로하여 변화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농촌부엌의 모델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박연훈(1987). 농촌주택 개량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 유옥순(1988). 한국 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3) 이 원(1987).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4) 이은경(1989).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식사·취사공간 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5) 이정환, 이병기(1989). 농촌 중심도시의 유형구분과 특성비교. 농촌경제, 12(4).
- 6) 하성규, 윤원근(1989).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12(4).
- 7) 최병숙(1988). 서울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